

#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주요 내용

임 은 진\*

##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2022 Revised Geographic Curriculum Development

Eunjin L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 학교 현장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차기 지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함양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내용 중복성 축소,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내용의 타당성 제고, 계열성 확보,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모색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롭게 개설된 고등학교 지리 선택과목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내용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 편제표에 지리 과목명을 명시하는 것과 중학교 사회 과목을 지리와 일반사회로 분리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리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역량 함양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geographic curriculum development dire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vised 2022 curriculum, and to seek for supporting its successful settlement and implicating for development of the next geographic curriculum. The revised 2022 curriculum was designed to innovate our education system so that we can grow into a “leading people with inclusion and creativity” by cultivating basic knowledge and capabilities to respond actively to future social changes. In the revised 2022 geographic curriculum, the curriculum was develop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capacity development, learner-specific curriculum, content redundancy reduction, appropriation of learning volume and level, content validity improvement, sequence securing, and lesson improvement of future-oriented teaching/learning and evaluation measure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reflect the various opinions of educational officials, national and social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urriculum with the people’.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faithfully develop the newly opened high school geography elective curriculum, and accordingly, the contents of the middle school geography curriculum changed significantly. However, it still remains a task to specify the name of the geography subject in the current curriculum compilation table and to separate the social studies in middle school into Geography and General social studies.

**Key word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geographic curriculum, social studies curriculum, competency-building curriculum

\*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jlim21@kongju.ac.kr

## I. 서론

교육부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각 과목별 시간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행정 예고와 심의회를 거쳐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 고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에 대한 필요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21).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며, 이에 따른 개정 중점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합의과정 체제를 구축하였고,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2022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됐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언어소양·수리소양·디지털소양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범교과 학습주제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등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은 역량을 기른다는 교육의 목적은 유지되면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고 주도성(agency)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개정 비전에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역량(competency)과 주도성에 대한 강조는 OECD Education 2030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리 과목에 대한 연구는

차조일 외(2021)의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리과에서는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일반선택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선택 과목인 『한국지리 탐구』와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선택 과목인 『여행지리』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 학교 현장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차기 지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 내용 중 지리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핵심 역량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논하고,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그 과정에 대해 제시하고, 새롭게 교육과정 문서에 추가된 ‘교육과정 설계 개요’와 주요 문서체계에 대해 논하였다.

##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요

### 1. 2022 개정 교육과정 비전과 주요 개정 중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다(교육부, 2021b).

황규호 외(2021)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키워드는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으로 보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문제를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성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또한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의 함양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교육부(2021a)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개정 중점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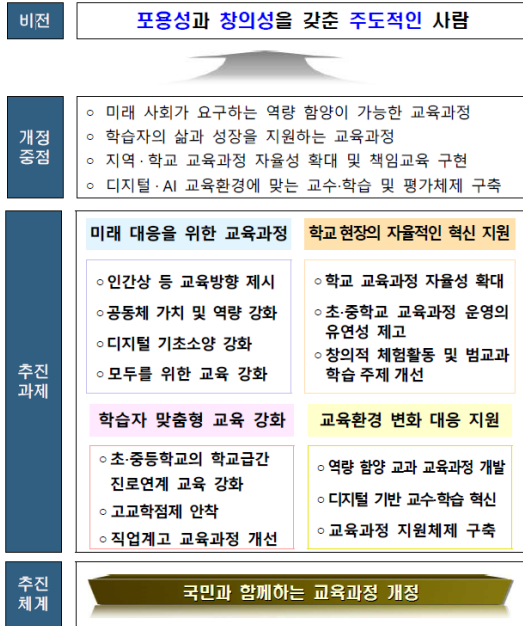


그림 1. 2022 개정 교육과정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출처: 총론 주요사항 발표(교육부, 2021a)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각 중점 사항 중 지리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각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핵심 역량 중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다.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학기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진로연계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직전 학년의 마지막 학기(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게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1학기 수업량을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하였다.

셋째,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이다.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다.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에서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 주도적 사람’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기 주도성’이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의 근간은 OECD의 Education 2030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으로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세웠다(김종운 외, 2019; 이상은, 2019; OECD, 2019).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복잡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의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면, Education 2030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웰빙(well-being)을 위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의 목표를 성공(success)이라고 하였다면, Education 2030에서는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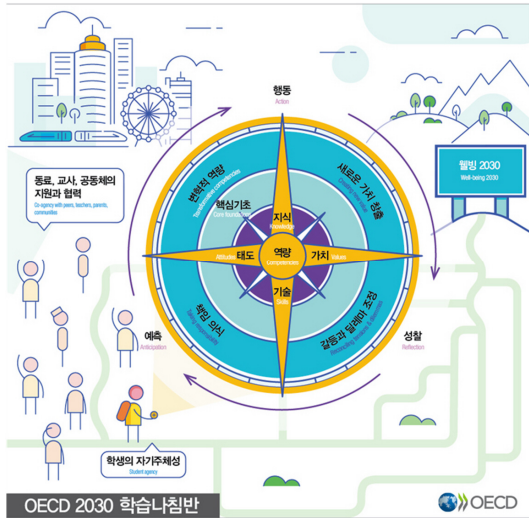


그림 2. OECD 2030 학습나침반  
출처: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보도자료, 2019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생의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은 학생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 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라는 세 범주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OECD Education 2030의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에 OECD는 국가 간 미래 역량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인 ‘OECD 2030 학습 나침반’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학습 프레임워크이자, 폭넓은 교육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그림 2).

## 2.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총론 주요사항 추진과제 중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교육’이란 교과를 삶과 연계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통합된 교과역량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것이 교과맥락을 떠나 실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먼저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한 역량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1b).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배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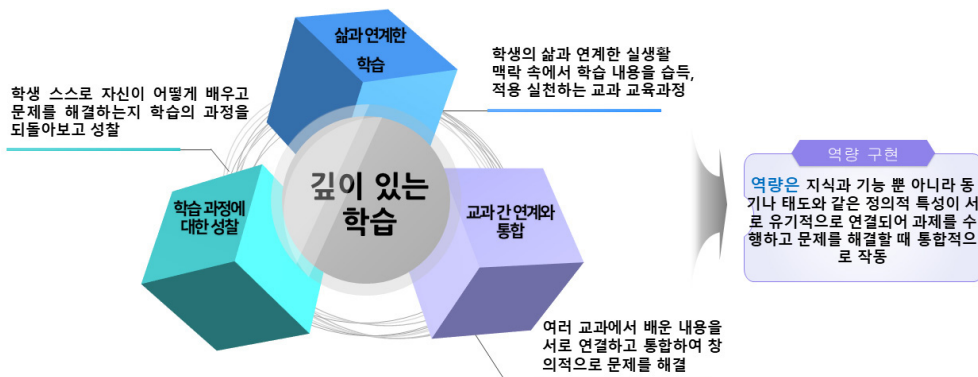


그림 3.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

출처: 총론 주요사항 발표(교육부,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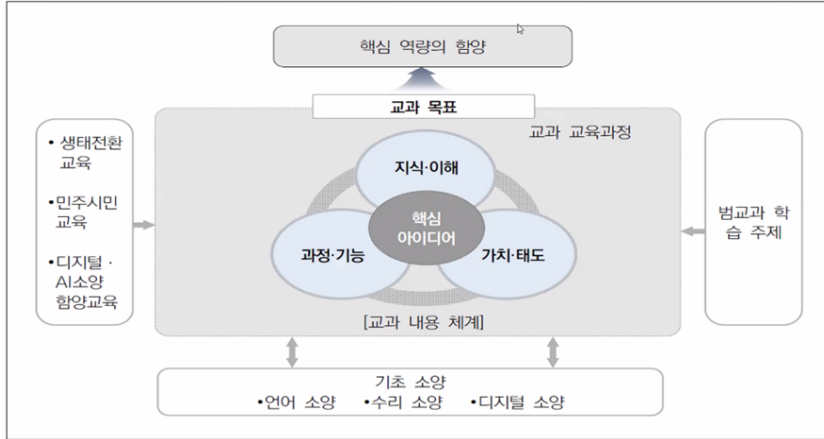


그림 4.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

출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2차 워크숍 자료집(교육부, 2022a)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를 구성하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란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삶과 연계한 학습'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 적용 실천하는 교과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 한다(그림 3).

또한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엄선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 강화해야 하며,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하여 깊이 있는 학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 강화와 학생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토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교과 내용 체계는 각 교과의 본질과 열개를 드러내는 핵심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상호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역량 함양을 위해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는 공통적으로 기초소양(언어 소양, 수리소양, 디지털소양)함양 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범교과 학습주제

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아이디어'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보다 더 포괄적이고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은 지식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가치·태도의 측면까지 포괄한다. 또한 '지식·이해'는 교과 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구체적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과정·기능'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과정, 교과 고유의 절차적 지식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가치·태도'는 교과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첫째, 역량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통합으로 보고 교과 내용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해야하며, 둘째, 지식은 단편적 지식이나 내용 요소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교급별 위계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셋째, 역량 함양을 위하여 기능을 강조해야하는데, 교과 고유의 사고나 탐구능력을 명료화하고 그것의 발달 단계를 학교급 별 위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넷째, 역량의 실천성, 수행성을 고려하여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데 해당 과목 교육의 결과로서 가치·태도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지향할지를 명료화해야 하고, 다섯째, 역량

함양이라는 큰 방향을 중심으로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본질과 열개를 드러내는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며, 성취기준은 영역별 학습의 결과로 진술하고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별이 아닌, 세 가지 차원의 요소를 통합한 학생의 수행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 III.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

#### 1.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은 사회과 전체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은지용 외, 2022)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연구 방향과 목적은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 및 교육 환경의 변화, 국가·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기초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함양 교육과정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둘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셋째,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관련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부응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등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영역 내 및 영역 간에 나타나는 내용 중복성 축소 및 통합성 강화,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내용의 타당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섯째,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공통과목 및 선택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간의 계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며, 여섯째, 미래 사회의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

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모색하며,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모색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연구,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관련 연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기초 연구 및 총론 주요 사항(교육부, 2021a; 온정덕 외, 2021; 이승미 외, 2021; 주형미 외, 2021; 차조일 외, 2021)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 72개에서 49개로 학습량이 감축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성취기준 수는 유지하되, 학습 요소를 감축하여 질적 적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우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기본학점이 5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됨으로써 현행 5~8개의 영역(주제) 수를 4~5개로 조정하고, 현행 19~28개의 성취기준 수를 12~16개로 조정하였다. 셋째, 초·중등 내용 간 계열성을 제고하여 중·고 학교급 별로 학습자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급 별로 적정 수준의 내용을 배치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심화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넷째,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와 학습자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개별 학습자의 적성 및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및 위기, 감염병 확산, 기상 이변과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디지털 기초 소양, 기타 요구사항(지속가능발전 교육, 경제·금융 교육, 노동(인권) 교육, 평화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 시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 2. 지리영역 교육과정 개발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육과정 개발은 사회과 전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지리 전공자가 참여한 개발 과목은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사회』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전공자가 함께 개발하였으며, 중학교 『사회』는 지리, 일반사회 전공자가 개발에 참여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목이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구분되었다. 공통과목이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이라면,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 선택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융합 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지리 선택과목의 선정 및 과목명 등에 대한 개발은 차조일 외(2021) 역량 함양 사회과교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혜숙 외(2022)에 의하면 지리 영역 고등학교 선택과목 선정에 있어서 지리 관련 전국 단위의 4대 학회 및 전문 학회, 전국 단위의 지리교사 단체 14개가 모여 결성한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소속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였으며, 실제 선택과목 개발 및 단원구성안 도출 등과 같은 실무적 차원의 연구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산하의 ‘지리교육과정위원회’, ‘전국 지리교사 네트워크’,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지리과 전공실과 협의 및 의사소통

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리 영역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일반선택은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선택은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선택은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연구 참여 인력은 교수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소속 8인, 학교 현장 교사 7인이었고, 각 과목별로 교수급 연구진과 현장 교사 비율을 같도록 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대규모 의견 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각론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합동 워크숍, 전문가 협의 회 및 세미나 개최,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는 1차 연구(2021.12.08~2022.05.08)와 2차 연구(2022.07.15~2022.12.09)로 나누어서 시행되었다. 1차 연구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으며, 2차 연구는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차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부분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였지만,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차 연구에서 개발한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습자의 수준과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고,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초·중·고 교사와 전문가의 서면 검토 및 대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합동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은지용 외, 2022).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주최한 워크숍이 7회 이상 이루어졌는데, COVID-19 등으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사회과 전체 연구진 회의가 15회 이상 이루어졌다(그림 5). 또한 지리 영역 개발진 전체 회의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17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수시로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와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과 개발 과목

학교 급	개발 과목	
초등학교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공통과목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일반선택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선택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선택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그림 5. 교육부 주최 7차 합동워크숍

의견을 교류하였다. 또한 각 지리 과목별 개발 및 자문 회의는 별도로 이루어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현장 교사 및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요약하면, 먼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및 개선 의견조사(2022. 1. 7~2022. 1. 20)가 약 1,200명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및 개선 의견수렴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안의 타당성 및 현장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의견 검토(2022.7.27~2022.8.17)를 통해 초안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핵심교원 연수’를 통한 제안서 검토 및 의견 수렴(2022.7.27.~2022.8.17)

도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2022.4.22)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시안 검토 공청회(2022.9.30)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6은 공청회 때 현장 지리교사모임 등에서 현재 지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담아 준비한 피켓과 현수막 중 일부이다.

또한 참여 연구진 과목별 교차 검토뿐만 아니라, 각 영역 전문가 및 대학 교수,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각 과목 개발 내용의 적절성, 내용 연계성, 내용 중복성, 현장 적합성, 학습 난이도 및 학습량, 문장 형식 및 표현 등을 계속적으로 검토 받았다. 특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회장단과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 등의 자문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시안 개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그리고 지리 영역 연구진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2022.6.11), 대한지리학회(2022.6.18), 한국지리학회(2022.11.26)에서 개발 중인 각 과목의 시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 관련 학회와 전국 단위 지리교사 모임 등의 연합단체인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함께해 나갔다.

### 3.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와 주요 문서 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이다. 사회과에서는 교과 차원에서만



그림 6. 공청회(2022.9.30)시 지리교사 모임에서 준비한 피켓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작성하였으며, 문서 서두에 총론의 주요 방향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 교과 구성 체계, 영역 및 핵심 아이디어 선정 원리, 내용 체계의 세 범주(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문서 작성을 위해 지리, 일반사회, 역사 영역 대표진 회의가 여러 번 이루어졌고 지리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 『사회』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고 방향성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과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총론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으로 강조한 민주시민 및 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사회과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에 공동체 의식,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의 민주시민 관련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감수성 등의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과를 구성하는 영역을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은 사·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문제나 쟁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리 관련 영역은 다양한 장소와 공간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와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지리, 일반사회, 역사 관련 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의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지리 관련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리 현상을 인식하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작용을 파악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자질을



그림 7.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사회과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의 지식·이해에는 학생이 시민의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시간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정·기능은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쟁점을 분석하며, 다른 사람 및 집단과 소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되었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해석·활용·창조, 지리·역사·사회과학 탐구,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의사소통 및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가치·태도는 민주적 기본 가치 및 지구적 가치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구성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그림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 개발된 사회과 개발 과목 주요 문서 체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성격 및 목표를 제시한 후, 영역 및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로 구성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학습 요소를 의미 있게 결합하여 문장 형식으로 진술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와 과정·기능 및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행동 용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었으며, 학생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서술어를 지양하고, 관찰 가능한 서술어를 사용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은 성취기준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제시하였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 상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상의 강조점, 그리고 평가의 중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에 대한 고려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은지용 외, 2022).

표 2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 영역 2. 가. 내용 체계 중 일부로 ‘지속가능한 세계’의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와 학교급별 계열성을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 IV. 결론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

새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 함양,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 및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각 교과 교육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의 강화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과 교육과정 개발은 사회과 전체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은지용 외, 2022)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3~4학년 군, 5~6학년 군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공통과목 『통합사회 1, 2』,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 선택 과목인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함양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등 교과 교육과정 방향을 반영하고, 내용 중복성 축소,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내용의 타당성 제고, 초중고 계열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함께 모여 검토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거나 차별화함으로써 학년에 따라 내용이 심화 및 확장되도록 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지리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지리환경

표 2.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 영역 내용체계 중 일부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li> <li>·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li> <li>· 인류는 공동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상호 협력 및 연대가 필요하다.</li> </ul>			
지식 · 이해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	· 지구촌 갈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통합과 분리</li> <li>· 지역 불균형</li> <li>· 분단과 접경지역</li> </ul>	
	지속 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li> <li>·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질</li> </ul>	· 지구촌을 위협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li> <li>· 지역문제 해결</li> <li>· 지속가능한 도시</li> <li>· 글로벌 환경 이슈 및 지속가능한 발전</li> </ul>	
	공존의 세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적인 국토 발전</li> <li>· 분단과 평화의 장소</li> </ul>	·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토의 미래상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환경의 조건 나열하기</li> <li>·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한 방안 탐색하기</li> <li>· 지구촌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조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가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자신 및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기</li> <li>· 지리적 문제 해결 방안과 실천 방안 모색하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li> <li>·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li> <li>·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식</li> <li>· 인류 공동 문제에 대한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li> <li>· 다양한 가치, 관점과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li> <li>·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평화 감수성</li> <li>·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리적 상상력</li> <li>· 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감수성</li> <li>·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li> </ul>

교육학회 회장단과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 등에게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지리 교육과정 개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또한 교육과정 관련한 쟁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해준 지리 관련 학회와 전국 단위의 지리교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지리인 연합 단체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와 지리교사 단체 연합회인 ‘전국 지리교사 네트워크’,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지리과 전공실 등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계속적으로 기술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리’는 교

육과정 편제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차기 교육과정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과가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초등학교는 ‘사회/도덕’, 중학교는 사회(역사 포함)/도덕’, 고등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으로 ‘지리’만 차별적으로 누락되어 있으며, 학교급 별로 사회과에 대해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편제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차

기 교육과정부터라도 편제표에 반드시 지리를 명기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지리’를 명시하여 영토 및 국토 교육, 생태전환교육, 세계 시민성 교육 등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기존 교육과정 편제표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사회과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4개의 전공영역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지리와 일반사회 두 개 영역만 사회 과목에 묶여있고, 역사와 도덕은 각각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고 그에 맞는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과서 문제는 결국 지리와 일반사회의 수업 시수가 역사나 도덕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지리 전공 교사가 일반사회 영역을 가르치고, 일반사회 교사가 지리영역을 가르치는 등 사회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이 기계적으로 합쳐진 중학교 『사회』 ①, ②를 ‘지리’와 ‘일반사회’로 분책하여, 비전공 교사가 가르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의 질 저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경우는 신설과목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교육부, 2015b,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19,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보도자료(2019년 10월 30일 배포)
- 교육부, 2021a,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자료집.
- 교육부, 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보도 자료(2021년11월24일 배포).
-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b,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7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 교육부, 2022d,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김다원, 2017,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의 지리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3), 319-337.
- 김종윤·이미경·이근호·서지영·조성민·최인선·배화순, 2019,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1단계 성과 분석: 교육과정 정책 및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9-9.
- 김혜숙·조철기·김병연, 2022,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77-89.
- 온정덕·김병연·박상준·방길환·백남진·이승미·이주연·한혜정, 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 온정덕·윤지영, 2021, “교과 교육과정 지식과 기능 영역의 의미와 설계 방식 고찰: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9(2), 한국교육과정학회, 29-55.
- 은지용 외, 2022a,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1-17.
- 은지용 외, 2022b,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2-7.
- 이상은, 2019,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5 개정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9(4), 123-154.
- 이승미·이미숙·이은경·이수정·강현석·설규주·박정유·임용덕·장경환·최성이·김영아·임성은, 2021,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형미·박진용·김상범·김현미·변희연·임윤진·서지영·이경연·박소영·배주경, 2021,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6-1.
- 차조일·김혜숙·박주현·배화순·김상범·조철기·김병연·강선주·오정현·박형준·이영호·김민재·차승한, 2021,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한혜정·이광우·민용성·이주연·전호재·온정덕·박창언·임유나·유영식·이석영·이영호,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2-5.

황규호·소경희·백남진·유영식·손미현·장은경·홍원표·이  
승미·김종훈·손민호·온정덕·정혜승·맹은경·김선  
희·차조일·신영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  
요 사항 설정 연구. 세종: 교육부.

OECD, 2018,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Paris: OECD.

접 수 일 : 2023. 02. 02

수 정 일 : 2023. 02. 20

게재확정일 : 2023. 02. 20

교신: 임은진,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ejlim21@kongju.ac.kr, 041-850-8348)

Correspondence: Eunjin Lim, ejlim21@kongju.ac.kr